

특별기획

정읍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내년까지 10억원 들여 약 400㎡ 규모로... 종합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정읍드림스타트, 영유아 부모교육

정읍시드림스타트는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영유아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탈로버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드림스타트는 "가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탈로버 부모교육'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부모와 아이, 가족, 이웃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행복 실현 부모교육을 말한다.

총 5회 교육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적인 가족,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녀의 잠재력과 재능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억원(국비 5억, 시비 5억)을 들여 시 제정사 내에 약 400㎡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농촌 내외부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재배 농산물의 2, 3차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에 대응한 소규모 창업 시 예상되는 가공 인프

라 부재와 가공기술 미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와 가공창업보육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해 가공센터를 신축기로 했다"며 "완공되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확산과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한국식품정보원 식품안전연구소(이하 식품안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15일 제정사 대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설명과 함께 참석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 수요도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취지 설명과 농업인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설명회에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제조업체, 일반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업체인 식품안전연구소 나혜진 소장은 가공센터 설치 유형 및 단계별 해결사항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가공은 식품 위생법과 관련된 사항만큼 정규 창업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에게 향후 가공센터를 활용한 기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식품위생법과 인허가 절차와 HACCP,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심화 실무과정 등을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투자와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가공 품목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를 걸쳐 선정된 농업인에게 향후 가공센터를 활용한 기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식품위생법과 인허가 절차와 HACCP,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심화 실무과정 등을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투자와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가공 품목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통해 100세 건강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4%로, 암(28.3%)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정읍시도 고혈압과 당뇨병의 평생사건단 경험률이 해마다 높아져 있는 추세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심뇌혈



정읍보건소는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중 합병증이 우려되는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경동맥초음파검사와 미세단백뇨 및 안과검사 등 합병증 검진을 실시한다.

정읍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활동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통해 100세 건강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4%로, 암(28.3%)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정읍시도 고혈압과 당뇨병의 평생사건단 경험률이 해마다 높아져 있는 추세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심뇌혈

관질환에 따른 합병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의료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 관내 9개(내과, 안과)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중 합병증이 우려되는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경동맥초음파검사와 미세단백뇨 및 안과검사 등 합병증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농협 영농철 좌담회·교육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문강사를 초빙, 종자 소독 및 병충해 방제, 잡초관리 등 전문적인 수도과 강의를 실시하여 조합원들로 호평을 받았다.

김제농협은 지난 6일 축산면을 시작으로 7일 교월동, 8일 부방면, 11일 요촌동, 김산동, 신평동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결산 공개 및 각 부별 사업성과 보고와 2016년도 김제농협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좌담회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및 NH은행 김제시지부 회의실에서 4일동안 실시한 좌담회는 김제농협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고성근 조합장은 "3,900여명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각종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주인의식을 함양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참여의식 함양과 농업사업 전이율을 통한 김제농협 발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김제농협은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조합원자녀 장학금 영농자재 무상지원, 농업안전보험 및 농작물 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환원사업 확대와 조합원 복지향상에 주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원장 허건량)은 15일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펼쳤다.

원예특작과학원, 부안 행산마을서 농촌운동

직원·주민들 쓰레기 정리 등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원장 허건량)은 15일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에서 원예특작과학원과 직원과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펼쳤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환경개선 활동 추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직원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

는 '앞으로도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꾸준한 환경정비를 실시해 아름다운 내 고장, 다시 찾아오는 농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예특작과학원 박진면 원예특작관과장은 "올해 다시 찾아오게 돼 더욱 반갑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해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도 방문해 일손돕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에게 향후 가공센터를 활용한 기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식품위생법과 인허가 절차와 HACCP,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심화 실무과정 등을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투자와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가공 품목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통해 100세 건강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4%로, 암(28.3%)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정읍시도 고혈압과 당뇨병의 평생사건단 경험률이 해마다 높아져 있는 추세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심뇌혈

부안군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부안군은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

강수량이 가장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 오염물질이 조금만 흘러들어도 수질이 쉽게 나빠지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대형 수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군은 20개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우려 수질오염원을 증점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은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주요 하천인 동진강 및 고부천 등 5개 하천을 상시 순찰하는 등 폐수로 인한 사전 예방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북봉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bchi Wine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